

최종보고를 작성할 예정이다.

INSAG의 금년도 활동의 대부분은 事故後의 解析에서 밝혀진 原則을 中心으로 安全基本原則을 作成할 방침이다. 이 작업은 체르노빌事故에 대응해서 행해지고 있는 IAEA의 原子力安全과 放射線防護에 關한 擴大프로그램의 一環이다. 계획되고 있는 내용은 전세계의 原子力發電所의 設計者, 建設者, 運轉者 및 規制當局者를 대상으로 指針을 부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NSAG는 이 原則을 規制를 目的으로 한 지침요건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모든 型의 원자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개념으로서 發電所의 安全목표와 條件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범위는 立地, 設計, 運轉, 補修, 事故管理

및 緊急對策 등이다.

INSAG는 IAEA의 事務總長에 對한 자문기관으로서 핀란드의 A·브오리넨氏를 책임자로 하여 韓國, 佛, 西獨, 東獨, 인도, 日本, 英國, 美國 및 소련의 專門家들로 구성 되어 있다.

W.J.Dircks氏, IAEA事務次長에 選定

美國原子力規制委員會의 前 운영담당이사였던 William J. Dircks氏가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事務次長으로 선임되었다. 1988年 1月 1日 字로 임명될 Dircks氏는 IAEA의 행정부를 책임 맡게 된다. Dircks氏는 금년에 57세로서 작년에 NRC를 퇴직하고 그동안 美國原子力産業會議의 수석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대 만

GE社와 臺灣電力, Maanshan原電 터빈發電機燒損事故 辨償合意

GE社와 臺灣電力은 지난 1985年 7月에 發生한 Maanshan原電 1號機의 터빈發電機의 燒損事故에 대한 辨償問題에 合意를 보았다. 이에 따라 GE社는 實際補修費用을 負擔하고 臺灣電力側은 大部分의 代替電力費用을 負擔하게 되었다.

이 燒損事故로 이 유니트는 14個月間 運轉이 中斷되었으며 그당시 雙方間에 이 플랜트가 再稼動될 때까지 協商을 延期하기로 合意를 보고 그동안 GE社는 主要設備의 代替 또는 補修에 대해 責任을 지기로 하였다. 새로 合意를 본 協約에 따라 GE社는 이 유니트를 復旧시키기 위해 이미 設備費와 人件費에 使用된 7千1百萬弗을 負擔하게 될 것이며 此外에 現地調達 設備와 人件費條로 臺灣電力에서 使用한 約4百萬弗을 追加로 償還하게 될 것이다.

GE社는 臺灣電力에서 請求한 代替電力費로 因

한 損害賠償은 拒否하였다. 그러나 Taichung地方의 一連의 火力플랜트에 納品할 터빈發電機에 대해서 臺當 1千1百萬弗씩 價格을 낮추는데는 GE社가 同意하였다. 臺灣電力은 臺灣內에서의 GE社와의 合作으로 4臺의 터빈發電機를 發注豫定이며 이에는 2臺를 追加發注할 수 있는 選擇條項이 包含돼 있다.

이러한 價格引下調節의 根據는 臺灣電力이 1970年代에 처음으로 合作形態로 契約했을 當時보다 市場價格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臺灣電力은 이 商談은 Maanshan 原電事故收拾을 위한 協商과 一括해서 再協商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그 理由는 이 事故로 供給業者에게 더 影響을 줄수 있는 口實이 생기고 또한 國營業體인 臺灣電力이 Maanshan事件으로 더 有利한 解決을 보았다는 것을 國民에게 보이기 위해서 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GE社는 Maanshan 1號機의 터빈發電機의 하자保證期間을 1年延長하여 1987年末까지로 하고 2號機에 대해서는 2年延長하여 1988年 6月까지延長하는데 同意하였다.

事故調査結果 이 火災는 破損된 브레이드에서 始作되었으며 이로 因해 振動이 생기고 冷却탱크의 水素漏洩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勵磁機의 스파크에 의해 引火된 것으로 判明되었다.

브라질

브라질大統領, 極秘의 아르헨티나原子力工業團地 訪問

브라질의 Sarney大統領은 아르헨티나의 Alfonsin大統領의 貴賓資格으로 지난 7月 17日 아르헨티나의 極秘에 붙혀져 있는 우라늄濃縮試驗工場과 其他 原子力施設을 訪問하였다. Alfonsin大統領은 아르헨티나의 原子力프로그램은 「軍事的인 目的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Sarney 브라질 大統領을 前例없이 招請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lfonsin大統領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西南方 約 1,100마일에 位置한 Pilcaniyeu우라늄濃縮工場이 있는 Patagonia 地方의 San Carlos de Bariloche에 있는 아르헨티나原子力委員會(CNEA)의 原子力工業團地로 Sarney大統領과 同行할 豫定이다.

지금까지 外國人으로써 이 가스擴散式 濃縮工場을 訪問한 사람은 1983年 11月 24日 訪問했던 IAEA事務總長 Hans Blix씨 뿐이며 이 訪問은 當時의 軍事政權이 이 工場이 있음을 發表한 數日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以後로는 이 工場의 運營은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 해에 最初로 우라늄 500Kg을 20% U-235로 濃縮하기 始作할 것이라고 CNEA科學者들이 示唆한 것 外에는 秘密에 붙혀져 있었다. Alfonsin政府는 國家安保와 産業機密의 保安을 理由로 이 플랜트를 國際機構의 檢閱을 위해 開放하는 것을 拒否해 왔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兩國은 相互間의 檢閱을

위해 原子力施設을 開放하기로 1985年 3月에 原則적으로 合意를 보았었다. 이 豫期치 않았던 움직임은 兩國間에 때때로 加熱되고 漸次 더 비싼 代價를 치르게 될 地域的인 原子力競争을 終熄시키기 위한 兩國의 決議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Alfonsin大統領의 이 이니시아티브는 西方의 많은 觀測通들이 豫測한대로 兩國의 國粹主義者로부터의 壓力에 의해 달라지지 않았으며 兩國間의 原子力協力關係는 그때 以後로는 安保問題를 제외하고는 9個의 다른 對象分野를 包含시키는 데까지 擴大되었다.

그러나 兩側은 비록 相互信賴와 尊重에 바탕을 둔 原子力協力關係라 할지라도 어떠한 形態로든 Pilcaniyeu플랜트로의 接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브라질로서는 全的으로 安堵感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點을 認定하고 있었다. 브라질의 關係者들은 어마어마한 資金을 使用한다하더라도 브라질이 今世紀中에 安全防護措置가 돼 있지 않은 濃縮技術의 로우하우面에서 아르헨티나를 쫓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此外에 아르헨티나는 經濟的인 問題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核燃料週期技術에서 브라질보다 5~11年 앞서 있으며 原子力發電所의 運轉, 規制 및 一部の 基礎的인 研究分野에서는 이 보다 더 앞서 있다고 브라질關係者들이 말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原子力分野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充分히 안